# K-TV 국 립 영 상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1 / 전화(02)3450-2232 / 팩스 3450-2249

**수 신 : 박영숙 소장님**

**발 신 : K-TV 국립영상**

PD 정혁환 : [redacted]

작가 박민선 : [redacted]

e-mai : peacepms@hanmail.net

Tel : 3450-2231~3 Fax : 3450-2249

**제 목 : K-TV 월드컵 특집 <꿈은 이루어진다> 대담 요청**

---

1.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방송하는 케이블TV 공공채널(CH14) K-TV는 국내 유일의 국립방송입니다.

2. 공공채널 K-TV는 부처 정책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실시간 홍보하여 여론을 선도적으로 주도키 위해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3. K-TV에서는 200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지 한 달을 맞아 월드컵의 성과를 정리하고 월드컵의 열기를 국운 상승으로 이어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4. 8월 6일(화) 방송 예정인 월드컵 특집 <꿈은 이루어진다> 에서는 2002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가 갖는 의미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5. 이에 박영숙 소장님과의 대담을 통해 월드컵에서 보여준 국민대화합과 평화이미지를 국운상승의 발판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촬영일시 및 장소 : 시간과 장소는 소장님 일정에 맞춰 직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트월드컵 대담 질문안

1. 월드컵 기간동안 우리 축구선수들이 승리를 일궈낼 때마다 우리는 '단군이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환희에 넘쳐난 일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 월드컵을 마치고 외국의 많은 언론들은 "한국은 축구에서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단결력**, **친절**, **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4강에 올랐다"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지난 48년 동안 다섯 차례의 월드컵 본선진출에서 단 한번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 치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월드컵 4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짚어주시죠.

3. 외국 언론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높아진 한국과 한국민의 위상,
그리고 한국민과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 등은
월드컵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월드컵 이후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가 이미지 상승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사실 이번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는
월드컵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정부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걱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길거리 응원,
또 응원이 끝난 후에는 쓰레기를 줍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모습.. 참 자랑스러웠는데요.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국민화합,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 월드컵에서 나타난 이 같은 국민적 에너지...
어떻게 하면 국가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6. 아쉬운 것은 민족적 축제였던 월드컵의 환희를
북녘동포와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먼 북녘 땅에서나마
우리의 환희와 기쁨을 공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7. 우리국민들, 이번 월드컵 참 잘 치러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월드컵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포럼 21

# 포스트 월드컵, 한국의 과제

*<진행:이세중, 출연:오기평, 박춘호, 이강숙, 박영숙, 백낙청, >*

| 시간 | 제 목 | 내 용 | 비 고 |
|---|---|---|---|
| | TITLE | *포스트 월드컵, 한국의 과제* | |
| 20′ | 월드컵에서 확인된 한국인, 한국사회의 저력 |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사회<br>⇒다이내미즘을 국가발전의 동인화<br>-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br>-젊은 세대에게 심어진 한국,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br>⇒R세대의 자발성, 자신감을 사회 변화의 동인으로 | |
| 20′ | 사회통합 계기로서의 월드컵 | -정치, 지역, 계층간 분열 통합가능성<br>-지역주의 타파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필요성 절실<br>⇒정치권 혼란 극복 계기 | |
| 30′ | 새로운 리더십의 사회적 요구 | -히딩크 신화의 의미<br>⇒글로벌 인재 과감하게 도입<br>⇒외국, 외국인에 대한 폐쇄성 극복<br>⇒패배주의 극복, 자신감 충만<br>⇒뛰어난 지도자 원하는 국민적 욕구<br>-한국형 리더십의 목표 제시<br>⇒연고주의 인사 타파와 능력주의<br>⇒명확한 국가 목표 설정<br>⇒한국 사회의 펀더멘탈 강화 | |
| 10′ | 국가 발전 비전의 정립 계기 | -국가 브랜드 이미지 구축<br>-IT 강국 코리아의 세계화<br>-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 |

# KBS 포럼 21

# 포스트 월드컵, 한국의 과제(가제)

##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포럼 21의 이세중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은 하나의 국제 스포츠 경기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안의 새로운 우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감격을 잠시 접어두고 과연 우리가 월드컵에서 얻은 성과와 월드컵에서 발견한 우리의 참모습을 어떻게 이어 나가야할 지 고민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변화의 동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월드컵은 한낱 4강 신화를 이룬 추억의 장으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월드컵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와 그 과제를 잘 풀어 1류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KBS 포럼 21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월드컵에서 확인한 한국인, 한국사회의 저력

▷이번에 외국 손님을 맞는 우리 나라의 구호가 '다이내믹 코리아'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 사회의 다이내미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바로 이번 월드컵이었다는데서 정말 이번 월드컵은 우리 국민에게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죠.

-한국 사회의 저력으로서의 역동성
-IT 선진국과 다이내미즘의 연관성
-인터넷, 휴대전화가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
-역동성과 강한 응집력은 한국의 장점

▷이번 월드컵이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하면 된다'는 것을 구호가 아닌 현실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감을 갖게되고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바뀐 계기가 바로 이번 월드컵이 아닙니까.
(오기평, 박춘호, 백낙청)

-서구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는 계기
-우리 사회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의 반성
-축구 변방에서 4강에 오른 저력으로 충분히 선진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번 월드컵에서 젊은이들이 보여준 자발성과 자신감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는 계기가 됐다.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나약하고,책임감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우리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들을 글로벌 시대의 인재로 만들려면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떤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춘호, 정근모)

-적극적인 해외 진출
-한국 사회의 비전 심어줘야
-외국과의 다양한 문화 교류

## 사회 통합의 계기로서의 월드컵

▷온 국민이 하나가 됐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이번 월드컵처럼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된 사건도 유사이래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외쳐봤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데서 국민통합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숙, 백낙청, 박춘호)

-국가가 명백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 국민은 단합한다.
(예;IMF 국난 극복시 금모으기 사례 등)

▷이번 월드컵은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고 어떤 점에서는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지역주의나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비전을 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백낙청, 오기평, 박영숙)

-상생의 정치
-국민 통합의 비전제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

## *새로운 리더십의 사회적 요구*

▷이번 월드컵을 통해 최대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은 단연 거스 히딩크 감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우리에게 리더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준 메시지는 연고주의 타파하고 능력에 따라 선수들을 선발한 것인데 위계질서와 연고, 학벌 대신 능력과 노력을 우대하는 것이 우리 관료사회나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기평, 박춘호)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
-파벌주의, 패거리 문화 배격

▷히딩크 감독의 성공은 우리사회 폐쇄성 극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외국의 인재를 등용하는 열린사회로 가야한다는 점을 일러준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이강숙, 백낙청)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한 인식의 전환
(외국인 CEO 성공 예, 우리 대학의 본교 출신 우대 풍조 등의 문제점)

▷우리가 4강에 진출한 요인 중에 하나로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기초체력이라면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키워야 하겠습니까. (박영숙, 오기평)

⇒한국 사회의 펀더멘탈 강화
(원칙을 지키는 사회문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

## 국가 발전의 비전 정립 계기

▷2002 한일 월드컵은 안으로 국민적 자신감을 심어줬지만 밖으로도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안겨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정립해야할 때라고 보는데요, 최근 코트라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을 잘 알고 있다는 외국인이 1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하면 분단을 떠올리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월드컵이나 고도성장을 떠올린다고 하는데 이처럼 높아진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더 높여 나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춘호, 백낙청)

-지속적인 국가 브랜드 이미지 관리 (국가 이미지 관리 위원회 설치)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상품 개발 (이강숙)

▷우리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단기적인 과제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가 중요한데 외국 기업의 선호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에 이어 4번째에 불과합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입지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참석자 전원)
(문제점;영어 구사 능력, 노동유연성, 관료주의 順)
경제 특구내 영어 상용화 논의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전환

## 과 제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4강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축구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인프라 구축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1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needs를 이해하고 수렴하는 정치(박영숙)
-여가문화의 이해와 문화 인프라 구축(이강숙)
-사회의 투명성 확보(박춘호)
-국가 매력도 상승으로 외국인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진정한 글로벌화(오기평)
-종합(백낙청)

2002 한일 월드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월드컵에서 얻은 감동을 감동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만드는 것 역시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말미에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기본과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국민이 화합과 단결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1류 국가로 도약하는 것도 그리 먼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